

# 2002년 월드컵과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및 참여방안

2000. 12

# 2002년 월드컵과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및 참여방안

2000.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Research Center for the 2002 World C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진

---

연구책임: 한영주 (월드컵지원연구단장)

연구진: 노영순 (월드컵지원연구단 연구원)

서수경 (월드컵지원연구단 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 목 차 >

I. 들어가며 .....	1
1. 연구 내용 및 방법 .....	1
2. 연구대상 .....	2
II. 사례연구 : 일본 요코하마 시의 민관 협력 방식과 월드컵 대회 준비 .....	2
1. 민관협력을 위한 의제(agenda) : 요코하마 코드 .....	2
2. 요코하마시의 민관협력 방법 .....	4
3. 민관협력을 통한 월드컵 준비 : 요코하마 월드컵 개최추진위원회 .....	6
III. 2002 월드컵에 대비하여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방안 .....	6
1. 민관 파트너십의 문제 .....	6
2. 월드컵에 대비, 민관협력방식의 개선방안 .....	8
IV. 월드컵 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아이템 수집 .....	10
1. 설문실시 및 수거 .....	10
2. 설문조사 결과 .....	10
<별첨자료> 설문지 .....	18

## I. 들어가며

시민월드컵의 각 사업별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와 지역단체,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민자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시민단체의 참여는 기존 관주도의 사업 관행을 탈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즉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사회적 대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지니고 있는 영역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민관 네트워크 확립으로 대회 이후 시정운영에 있어 모니터링, 정책자문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비정부조직, NGO)는 월드컵 행사 참여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첫째, 관 주도 행사에 대한 거부감, 둘째, 월드컵 대회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88 올림픽 등의 예에서 드러난 정권의 정치적 이용), 셋째, 시민단체 참여목적과 역할의 모호함, 구체적 참여프로그램의 부재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첫째, 월드컵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짚어보고,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2002년 서울시 월드컵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아이템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연구 내용 및 방법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일본 사례연구를,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월드컵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 민관파트너십 개선방안, 공모사업 아이템 설정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를 위해 92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E-mail 혹은 Fax로 설문지(부록 1 참고)를

발송했으며, 11월 25일 현재까지 14부의 설문지 답변을 회수했다<sup>1</sup>.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순수 민간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크게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과 같은 관변 시민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의 민간 시민단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관변시민단체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첫째, 월드컵문화시민추진협의회와 같은 관 주도 시민단체 활동에 이미 결합하고 있으며, 둘째, 서울시와 순수 민간시민단체의 파트너십 방안 모색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 II. 사례연구 : 일본 요코하마 시의 민관 협력 방식과 월드컵 대회 준비

### 1. 민관협력을 위한 의제(agenda) : 요코하마 코드

시민활동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요코하마코드)의 “민관협력 6가지 원칙”은 올바른 민관(private-public) 파트너십의 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에 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대등의 원칙

협동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행정의 대등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서로를 인식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하여

---

<sup>1</sup> 설문발송을 위해 1차 180 여 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의를 했으며 그 중 설문에 응하게 했다는 단체가 92개였다.

협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2) 자주성 존중의 원칙

시민단체의 활동이 자주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협력에 있어서는 공적 과제에 대해 단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의 시민단체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자립화의 원칙

공적 과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요하다. 의존관계나 유착관계를 배제하고 시민단체와 행정이 항상 독립된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의의이다.

## 4) 상호이해의 원칙

상대방의 본질과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은 보다 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장점이나 단점을 포함해서 서로를 좋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각각의 역할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

## 5) 목적공유의 원칙

협력을 할 때에 시민단체와 행정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협력에 의한 공적과제의 해결은 불특정다수인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 협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시민단체와 행정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해두어야 한다.

## 6) 공개의 원칙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단체와 행정의 관계는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행정에 관한 기본사항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누구라도 협력관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관협력을 위한 요코하마 코드에 있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첫째, 시민단체의 자주적인 활동보장, 둘째, 협력에 앞서 상호 신뢰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요코하마 지방정부는 권위적인 자세로 사업에 시민단체를 복속하려 하지 않고 지원하는 업무만 담당해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지방정부를 신뢰하게 되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제를 기반으로 사업실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 2. 요코하마시의 민관협력 방법

요코하마 시의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아래의 사업방식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나, 사업주체 간 역할분담, 권한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 1) 보조, 지원

요코하마시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적사업에 대해서 자금원조를 한다. 보조와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이행되며, 선정기준과 방법의 명확성이나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단체와 행정관계의 수준에 따라 대처하고, 시민단체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공동주최

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할 지라도 행정이 기획 및 자금면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협정서 등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시민단체와 행정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각이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며 추진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 3) 위탁

계약 규칙 등에 의거하여 행정이 사업 등의 실시를 시민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위탁은 본래 행정책임을 실시되어야 될 사업이지만 시민단체가 위탁업무에 있어서 기술과 전문성 등의 특징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방법이다.

### 4) 공적 재산의 사용

시민단체가 시민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칙화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서 장소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은 기존시설에 대한 저렴한 이용 등을 포함하여 시민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 한다. 동시에 시민단체가 공적 과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설을 우선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5) 후원

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후원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지원을 한다. 행정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일종의 신용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 6) 정보교환, 코디네이터

검토회, 협의회의 설치, 광고지의 발생 등에 의해 공동사업 실시를 위한 검토회나 정보교환 등을 실시한다. 시민단체와 행정은 보다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쌍방이 가진 정보교환에

의해 각각의 사업의 질을 높이고 협력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민관협력을 통한 월드컵 준비 : 요코하마 월드컵 개최추진위원회

요코하마시의 경우 민간단체 및 기업으로 이루어진 2002년 FIFA 월드컵 요코하마 개최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개최추진위원회는 서울시 문민협과 비교할 수 있는데, 순수 민간단체라는 점, 그리고 대회 유치 이전부터 자발적인 시민주도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관의 계도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문민협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시즈오카 현의 경우 개최추진위원회는 지사가 회장을 맡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민관조직이며, 위원회(부회)도 6개를 운영하는 등 요코하마보다 광범위한 스케일에서 시민단체를 공식조직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관이 주도하여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이 주도하며 관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민의 자율성을 관이 억제하는 과거 형태를 답습하면 분명 실패한다.

## III. 2002 월드컵에 대비하여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방안

### 1. 현재 민관 파트너십의 문제

민간시민단체의 참여는 기존 관주도의 사업 관행을 탈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단체가 지니고 있는 영역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시민단체는 월드컵 대회의 정치적 이용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참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공간이 형식에 치우쳐 있어 실제 활동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민관협력에 있어 시민단체와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민관 협력에 있어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인식

구분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정보수집, 조사, 연구	14	12.07%	17	13.18%
시민들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 캠페인	13	11.21%	43	33.33%
구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5.17%	10	7.75%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16	13.79%	39	30.23%
실업대책 등 정책사업의 집행	16	13.79%	3	2.33%
행정감시 및 서비스 제고	10	8.62%	8	6.20%
정책수립 및 정책과정 참여	40	34.48%	9	6.98%
기타	1	0.86%	-	-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중간보고서, 2000

민관 파트너십의 주안점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반면, 담당공무원은 결정된 정책을 ‘잘 집행’하는데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실제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일반적인 파트너십을 모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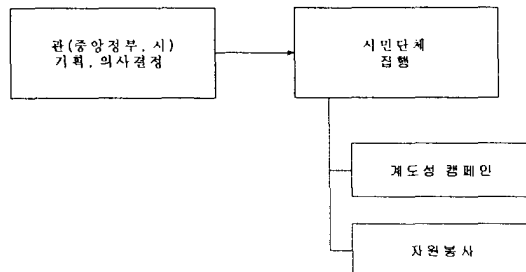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민관파트너십의 현황

그럼에서도 나타나듯이 민관 협력 사업의 기획 및 의사결정은 서울시 등 관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며,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문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듯 민관협력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단체의 형식적 결합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환경에 대한 서울시의 수준이 환경미화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시민단체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상, 서울시와 함께하는 것이 의미 없다(환경운동연합, 설문조사 결과)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서울시의 지방분권 마인드에서 시민분권의 마인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2. 월드컵에 대비, 민관협력방식의 개선방안

그렇다면 월드컵 대회에 국한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1)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앞서 '월드컵대회'의 의의에 대해 시민단체에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

현재 시민 단체들은 월드컵 대회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월드컵에 의해 불필요하게 예산 지출되고 정부가 월드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對 시민단체 홍보와 의견수렴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회대통합을 위한 서울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칭)'을 조직하여, 공식적인 협의구조를 만들

요코하마의 예와 같이 월드컵 대회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관 주도 단체라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범시민 캠페인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과감히 시민단체를 기획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별 사업별로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 서울시는 지원업무를, 시민단체가 기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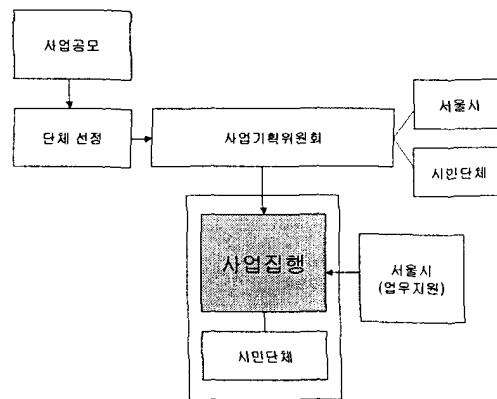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시민단체 파트너십 운영체계

### 3) 시민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 필요

월드컵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즉 관과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 완전한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과 역할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화 되는 부분으로 1) 환경 2) 도시계획 및 교통 3) 시민의식운동(질서캠페인, 시민교육프로그램 등) 4) 문화관광사업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각 부문 별로 정확한 catch phrase를 걸어 사업의 성격을 선명하게 한다(예. 환경의 경우 'Green World-Cup을 위한 시민단체 network')

## IV. 서울시 월드컵 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아이템 수집

### 1. 설문조사 실시 및 수거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내 총 92개 시민단체<별첨자료 1>에 개별 전화연락 후 E-mail 혹은 팩스로 설문지<별첨자료 2>를 발송하여 이중 13부 수거를 수거하였다. 수거율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각 시민단체들은 서울 월드컵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월드컵 사업과 단체의 활동이 별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서울시와 사업 협력에 회의적인 인식을 지닌 단체도 상당수 있었고 셋째, 설문방식이 E-mail과 팩스로 진행되어 발송과 수거가 상당히 부정확한 측면 때문으로 사료된다.

###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이 주관식이며, 수거율이 높지 않아 설문결과를 원문 그대로 수록한다.

각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 사업 참여 여부
- 2) 1)에 대한 답변의 이유
- 3) 참여 분야
- 4) 구체적 공모아이템
- 5) 귀 단체의 역할

< 초원봉사회(봉사) >

1. 참여할 의사가 없다
2. 조직적인 단체가 아니어서 인원동원의 어려움이 있다.

<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교육, 홍보) >

1. 조건이 된다면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교육

4. 사업명 : 사랑의 월드컵 일기 혹은 사랑의 한일일기 제작, 사업내용 : 인추협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성장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덕목을 일기장(사랑의 일기)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한일, 한중 일기 등이 편찬돼 재외동포 자녀와 현지 아동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 일기 혹은 韓日일기 등을 제작, 한일공동 개최되는 2002월드컵을 기념하고 한일간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사업개요 : 사랑의 월드컵일기 제작배포 - 월드컵개최시기까지 한시적 - 사랑의 한일일기 - 한국어, 일본어 2개국어로 된 일기장 제작, 한가지 덕목을 양국어로 이해, 재일동포 및 일본 어린이들에게 배포, 소요예산 : 편집개발비 - 권당 1000원, 인쇄비 권당 500원(2만부 기준), 물류비 권당 100원, 포장비 권당 100원, 총소요액(2만부 발간) = 34,000,000

< 녹색교통운동(교통) >

1. 적극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교통에 관련된 모든 분야

4. 대중교통이용캠페인

5. ①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② 시민들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 캠페인, ③ 정책수립, 의사결정과정 참여

< 시민사회네트(정보) >

1. 참여할 수 없음
2. 본 단체의 활동방향 및 목적과 무관
3. 없음
4.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축구가 서양 경기로 되어 있으나, 축구와 유사한 스포츠가 각 나라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별 유사경기의 소개를 하는 행사/이벤트를 한다면(그리고 소개하는 자료와 함께) 많은 이들이 축구를 단순한 스포츠에서 세계인의 문화적 공감대를 만드는 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① 정보수집, 조사, 연구

< 바른 운전자들의 모임 >

1. 조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교통(교통질서 지키기 활동 및 캠페인)
4. 사업명 : 외국인 운전자용 'Driving Manual' 작성 보급, 사업내용 : 많은 외국인들이 월드컵 기간 중 렌터카를 빌려 한국에서 직접 운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들이 안전하게 바른 운전을 할 수 있는 Driving Manual을 제작, 현장에서 보급하고 상담 및 안내 실시(교통규칙, 주요 방문지 등을 영어로 작성), 소요예산 : 3000만원
5. ① 정보수집, 조사, 연구 ②시민들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 캠페인

< 환경운동연합(환경) >

1. 참여할 의사가 없다(현 수준이라면)
2. 환경에 대한 서울시의 수준이 환경미화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것이 의미 없다.
3. 환경



4. 남지도 밀레니엄 파크의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변경(골프장 계획, 소각장 계획 철회)

5. 답변 없음

< (사)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환경, 교통, 정보) >

1. 적극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환경(공원 및 녹지대 관리 및 감시)

4.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도심 숲 체험. 월드컵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의 관광객들을 서울 한강 주변, 여의도, 홍릉, 비원, 남산 등의 숲을 체험하게 하고  
숲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프로그램. 이를 통해 자칫 상업적인 이미지만 느끼고 돌아 갈수도  
있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이 세계에 내세울만한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서울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게 함.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던 환경올림픽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임.  
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나,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산림전문가 등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강사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숲 체험  
사이트에 대한 영문 가이드북 제작비 정도만 추가로 소요될 것임. 40명 규모의 행사를 1개  
사이트에서 1일 2회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1회 진행 시 소요 예산(강사 2인) 50만원  
내외, 1일 100만원, 10일 1000만원 정도 소요. 3개 사이트 정도를 운영한다면 총 3천만원  
정도 소요 예상

5. 모든 분야에 참여 가능

< 환경사랑연합(환경, 교통, 정보) >

1. 적극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환경(자연보호), 교통(교통질서 캠페인), 문화관광(문화행사 및 월드컵 안내), 문화이벤트(월드컵 홍보요원)

4. 답변 없음

5. ① 시민들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 캠페인 ②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직접행동프로그램

< 걸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 연대(도시, 교통) >

1. 조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시민질서 계도 및 관광안내라고 생각됨. 도시연대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음. 중요한 부분은 단체의 활동내용과 연결되어야 하며, 연결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함. 도시연대의 경우 거리만들기 일환으로 거리 축제 개최 또는 시민참여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활동 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 내부에서 정리된 사항은 아님.

4. 답변 없음

5. ① 정보수집, 조사, 연구 ②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직접행동프로그램

< 정신개혁시민협의회(정개혁) >

1. 적극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교통(교통질서 지키기 활동 및 캠페인, 지하철 업무지원)

4. 답변 없음

5.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직접행동프로그램

< 한국청소년개발원 >

1. 조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문화, 관광(홍보관 및 관광안내소에서 관광, 교통, 문화행사 및 월드컵 안내)
4. 답변 없음
5. ① 정보수집, 조사 연구 정책수립, ② 의사결정과정 참여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

1. 적극 참여하겠다.
2. 답변 없음
3. 교통(교통질서 지키기 활동 및 캠페인)
4. 아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개요	소요예산
월드컵 교통질서 여기서부터	①-④ 월드컵 길 정하기, 월드컵 선도요원 구상활동	일본과 함께 치를 월드컵 교통질서도 앞서	4,800만원 지원범위에 따라 다름

5. ①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직접행동프로그램

< 신사회 공동선운동연합 >

1. 참여할 의사가 없다.

<답변 이유> 1. 시민월드컵 추진 개요 첫번째를 보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업자가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시민단체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관변적 양태가 심하다고 판단되어지며 - 물론 시민단체와 정부가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뒀은 당연한 사실이나 엄호한

현실속에서- 과연 월드컵이 시민의 질과 도시수준을 어떠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도약의 계기인지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지고 검증된 바가 없으며, 이것은 결국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동일한 의식적 연장선상에서 기인하는 탁상공론식 행정에 다름 아니라 여겨집니다.

2. 시민월드컵 추진개요 두 번째를 보면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서울시민이며, 월드컵을 통해 세계도시로 거듭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서울시민의 몫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의를 갖춘 선진시민 일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판단되어지나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모자라서 국민들의 땀돈을 이중삼중으로 거두어가는 속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서울시민이며, 월드컵을 통해 세계도시로 거듭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껏 서울시민이 아무일도 하지 않았으니-공무원이나 정부에서 다 해 왔으니-이제부터 자발적으로 나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드컵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진행할 월드컵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정치는 인생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태인데 월드컵이 국민의 몫이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월드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면 더 성공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시민이 어떻게 더 기여를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년 퇴임하시고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이나 가치관 형성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은 적극 권장할 바입니다.

3.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난관에 처해있는 시기에 치루어지는 월드컵의 성사여부는 시민의 힘이 좌우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과 경제를 이처럼 망친 경제인, 국가관료 등이 아직도 사죄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것은 행태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을 다른 곳을 돌릴 위험이 다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월드컵은 국가적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즐기고 그 결과 시민의 삶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자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층은 대단히 앓을 수 밖에

없으며 월드컵을 통해 과거 정권처럼 자신의 잘못들을 대충 넘어가는 그릇된 짓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별첨자료> 설문지

<월드컵 대회 참여방안을 위한 시민단체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입니다. “2002 월드컵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노영순

(Tel) 726-1201 (PCS) 019-308-7937 (FAX) 318-4997 (E-mail) ys72@sdi.re.kr

◎ 본 설문을 작성하신 후 2000.11.15까지 팩스(02-318-4779)로 보내주시거나 컴퓨터 상에서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민월드컵 추진 개요

- 새천년, 새만남, 새출발을 이념으로 하는 2002년 월드컵은 서울의 문화와 발전상황을 전세계에 알리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임
-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서울시민이며, 월드컵을 통해 세계도시로 거듭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서울시민의 몫임. 따라서 서울시민들이 진정 “우리의 행사, 나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적인 행사가 되어야 함
- 진정한 시민월드컵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월드컵 개최와 친절, 질서, 청결 중심의 손님맞이 사업에 참여와 봉사가 이루어져 성공적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 시민의 참여와 봉사는 월드컵 이후에도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승화되어 새서울을 가꾸는 모체가 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진정한 시민월드컵이 되기 위하여 아래 분야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와 봉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 야	참여 및 봉사 희망사업
질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질서 지키기</li> <li>- 경기장 질서, 청결운동</li> <li>- 상거래질서 확립유도</li> <li>- 다중이용시설 청결유지</li> </ul>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 및 감시활동</li> <li>- 하천정화 및 관리</li> <li>-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및 감시</li> <li>-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 활동</li> <li>- 간판, 광고물 정비 및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li> <li>- 가로판매대,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계도</li> </ul>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질서 지키기 활동 및 캠페인</li> <li>- 버스, 택시의 주정차 질서 확립</li> <li>- 택시의 합승, 초과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 계도</li> <li>- 지하철 업무지원 등</li> </ul>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관 및 관광안내소에서 관광, 교통, 문화행사 및 월드컵 안내</li> <li>- 서울시의 주요문화재 관리</li> <li>- 관광특구, 관광상품 및 특산품 안내</li> </ul>
문화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의 원활한 진행과 관람객의 편의 제공</li> <li>- 월드컵 문화예술축전의 홍보요원화</li> <li>- 관람질서 및 청결 유지</li> </ul>





③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직접행동프로그램

④ 정책수립, 의사결정과정 참여

⑤ 기타 ( )

◆ 단 체 명 :

◆ 총회원수 :

◆ 활동영역 (예: 환경, 교통, 정보)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연 2000-PR-15

**2002년 월드컵과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및 참여방안**

---

발행인 권원용

발행일 2000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전화: (02)726-1201 팩스: (02)318-4779

홈페이지 : [www.sdi.re.kr](http://www.sdi.re.kr)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